

# 청말 허무당 담론의 징후적 독해\*

김수연\*\*

## <目 次>

1. 청말 허무당 증후군
2. 허무당 담론의 일본 경로(經路)
3. 허무당의 소개와 담론의 형성
4. 허무당의 탈역사회와 소설화
5. 허무당 증후군의 의미망

## 1. 청말 허무당 증후군

20세기 초 중국사상계와 소설계에 있어서 특기할만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허무당(虛無黨) 신드롬이다. 허무당이 중국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1903년 전후는 서구의 각종 근대적 사조가 잡지와 번역서 등을 통해서 유입되고 있던 시기로서, 허무당은 서구의 근대적 사조나 운동의 한 형태로 소개되었다. 자유주의, 진화론, 민족주의, 제국주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국가주의 등 다양한 형태의 서구 사조가 영미나 유럽으로부터 직접 소개되거나 일본을 통해 들어왔다. 체계성과 심도 있는 이해에 근거한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다양한 외래 사상조류들에 대한 거의 동시적이고 “무분별”한 소개는 단편적이고 피상적이며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사상 및 지식계에 조급성과 급진성이 얼마나 만연했는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조급성이 청일전쟁 이후, 특히 1900년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L0016).

\*\*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의회단의 난 이후 신지식계를 중심으로 확산된 중국의 분할론 내지 위기론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현상을 가리킨다면, 급진성은 그러한 위기를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단호하고 전면적인 개조가 필요하다는 의식의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위에서 열거한 서구의 여러 사상조류들은 바로 중국의 근본적인 개조와 변혁을 위한 처방전으로 소개된 것이었다. 이는 1903년을 전후한 시점부터 중국에 급진적인 변화의 조류가 형성되었다는 의미와 더불어 변화방향을 둘러싸고 사상적인 분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허무당에 대한 중국 지식인들의 관심과 적극적 담론화는 자연스러운 귀결이기도 하다.

그러나 허무당 담론의 구체적인 양상과 그 전파 경로는 허무당이 단순히 하나의 사상사조나 운동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허무당과 허무주의는 사회주의나 무정부주의 등과 연계하여 사상의 조류로서 소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혁명과 관련된 시사소식, 사진의 이미지 자료, 전기, 소설작품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전파되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특징은 허무당이 소설이라는 양식을 통해서 대중적인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허무당 소설”이라는 특정 제재의 소설양식으로 명명될 수 있을 만큼, 허무당에 관한 혹은 허무당을 소재로 한 상당수 작품들이 1903-1912년 사이에 번역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신소설의 중요한 한 부분을 점할 정도로 중국 작가들에 의해서 창작되기도 하였다. 이는 당시 프랑스 혁명이나 서구의 자유주의 사조의 전파방식과 비교해도 여전히 특기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청말소설 연구자인 아잉(阿英)은 일찍이 청말시기에 번역된 소설은 크게 두 조류, 즉 탐정소설과 허무당소설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특히 당시 번역된 러시아 소설은 대부분 허무당 관련 소설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sup>1)</sup>

1) 阿英, 「中譯高爾基作品編目」, 『翻譯史話』, 『阿英全集』第5卷, 安徽教育出版社, 2003, 456, 789쪽 참고. 허무당 관련 소설을 러시아 소설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실제로 허무당 관련 저작과 소설을 보면 내용은 러시아 허무당과 관련이 있지만 실제 작품의 출처의 상당수는 러시아와 관련이 없다. 근래 한 연구에 의하면 1902년에서 1905년까지 중국에서 출판된 허무당 혹은 무정부주의 관련 저역저 27부 가운데 러시아 허무당(혹은 무정부당)과 관련이 없는 것이 10여부에 이른다고 한다. 張全之, 「從虛無黨小說的譯介與創作看無政府主義對晚清小說的影響」, 『明清小說研究』, 2005年第3期, 136쪽. 그러나 위 통계는 누락된 바가 적지 않으며, 특히 허무당 소설 다수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통계이다.

그럼 왜 20세기 초 10년 동안 중국에서 허무주의 및 허무당 소설이 중국 지식인들의 주목을 받았던 것일까? 이에 대해 청말시기 전제주의에 대한 비판과 혁명조류의 형성이 러시아 허무당의 반전제주의 활동과 서로 부합하는 면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sup>2)</sup> 당시 정치사상적 요인으로 세계의 사상조류를 독해하던 청말지식인들의 주요 시각을 감안할 때, 이러한 설명의 타당성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정치적 혁명이라는 차원만으로는 허무주의와 허무당이 당시 하나의 시대적 붐을 형성했던 원인을 설명하기에 충분치 않다. 이는 허무당 관련 지식 및 문화의 생산과 전파과정이 지식인 담론에서 대중적 담론에까지 확산되어 있고, 그 구체적 양상 또한 매우 복잡한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무당 붐의 현상과 그 의미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단일한 시대적 사상조류나 문화조류가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증후군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증후군이나 신드롬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보다 복잡한 사회적 맥락이 상호작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증후군은 청말의 허무당 담론이 지닌 정치·사회·문화 등 다양한 차원을 포괄하는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유익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2. 허무당 담론의 일본 경로(經路)

허무주의의 의미는 매우 모호하고 함축적이다. 니힐리즘에 대한 번역어인 허무주의는 때로는 아나키즘의 번역어인 무정부주의와 혼용되기도 한다. 허무주의와 무정부주의는 그 언어상의 차이만큼이나 의미의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nihilism이나 anarchism이라는 서구 언어가 지닌 개념적 맥락과 비교하면 번역상의 두 언어 사이의 차이로 인한 변형과 새로운 의미의 번식은 더욱 커진다. 허무주의와 무정부주의라는 번역어는 모두 처음 19세기 후반 일본에서 만들어졌으며, 허무주의는 무정부주의보다 더 일찍 일본 사상계에 의해 수용되었을 뿐만

2) 阿英, 『翻譯史話』, 『阿英全集』第5卷, 安徽教育出版社, 2003, 789쪽; 陳建華, 「『虛無黨小說』——清末特殊的譯介現象」, 『華東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6年04期.

아니라 그 주요 개념의 모태는 러시아의 니힐리즘이었다.

러시아의 니힐리즘은 익히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주로 체계적인 사상운동이 아니라 푸르케네프나 도스토예프스키와 같은 문학가적인 사상가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었다. 그 중에서도 푸르케네프의 소설 『아버지와 아들』은 니힐리스트 즉 허무당의 의미를 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푸르케네프는 자신의 소설 속의 한 인물인 바자로프를 니힐리스트로 규정하고 그 특징을 “어떤 권위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아무리 주위에서 존경받는 원칙이라고 해도 그 원칙을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sup>3)</sup>”으로 규정하였다. 바자로프의 인물을 통해 보여지는 니힐리스트는 혁명가가 아니라 과학적 지식과 같이 합리성과 유용성이 검증되지 않은 모든 가치와 권위, 전통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인물에 가깝다.<sup>4)</sup>

그러나 1880년대 일본에 허무당의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소개된 러시아의 니힐리즘은 사상적 태도의 의미로서보다는 1870년대 러시아에서 한창 성행했던 나로드니키의 혁명운동이었다. 1882년(메이지 15년)에 가와시마 주노스케(川島忠之助)가 번역한 『虛無黨退治奇談』<sup>5)</sup>, 니시카와 츠테츠(西河通徹)가 영문잡지에 실린 글을 역술하여 역시 잡지에 게재했다가 후에 단행본으로 묶어 출판한 『露國虛無黨事情』(競錦堂, 1882), 소마타 사쿠타로(杉田策太郎)가 번역한 『烈女の疑獄: 魯國奇聞』(由己社, 1882), 안도 키지로(安東久治郎)가 편찬한 『露國虛無黨之由來』(東雲館, 1882) 등이 잇달아 간행되고, 또 같은 해 3월 『錦江新誌』에는 다루이 토키치(樽井藤吉)의 「東洋の虛無黨」이 게재되었다.

1880년대 일본에서 허무당 소개나 허무당 관련 소설이 갑자기 대두된 데는 당시 일본의 정치·사회적 상황과 연관이 있다. 메이지 7년 이타가키 타이스케(板垣退助) 등이 정한론(征韓論)을 주장하다가 반대에 부딪힌 후 정부를 떠나 육해군 사관 및 병졸들과 함께 입지사(立志社)를 세우고 언론과 강습소 등을 통해 자유민권 운동을 전개하였다. 다케코시 요사부로(竹越與三郎)에 의하면 입지사는 양학

3) 이반 투르케네프 저, 이항재 옮김, 『아버지와 아들』, 문학동네, 2011, 39쪽.

4) Copleston, Frederick, *Philosophy in Russia: From Herzen to Lenin and Berdyaev*, Notre Dame: Search Press, 1986, p. 102.

5) 원서는 Paul Vernier, *La Chasse aux Nihilistes*, Paris: P. Ollendorff, 1880.

소(洋學所), 법학소(法學所) 등을 세우고 밤낮으로 자유민권설을 강연하거나 프랑스 혁명에 관한 동요를 지어 거리에 유포하고, 또 러시아 사회당의 비운(非運)을 소설화하여 평민들에게 전파하였다고 한다.<sup>6)</sup> 입지사(立志社)가 자유민권운동을 위해 러시아의 사회당에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1870년대 말 국제적인 주목을 끌었던 러시아 나로드니키의 테러방식의 혁명운동<sup>7)</sup>과 관련된 소식들이 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당시 전제주의에 대한 비판이라는 측면에서 일본의 자유민권 운동과 전제에 반대하는 러시아 나로드니키의 사상적·실천적 혁명활동은 동시대적 성격을 지님과 동시에 영향관계가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자유민권운동의 사상적 자원은 프랑스 혁명 및 서구의 계몽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1870년대 이후 러시아 나로드니키 등의 혁명운동이 일본과 동시대적으로 진행되는 자유민권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히 더욱 주목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 근대 계몽운동에서 프랑스 혁명이나 미국 및 영국의 정치사상 이외에도 러시아를 경유한 서구의 근대적 계몽사상의 영향 또한 적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당시 러시아의 나로드니키 운동에 대한 자유민권운동가들의 관심은 사상적인 면보다도 활동방식에 있었다. 처음 러시아 혁명운동가의 전기를 소개하고 소설화했던 『婦女立志歐州美談』과 『魯國奇聞烈女の疑獄』은 바로 베라 자술리치의 저격사건<sup>8)</sup>을 소개한 것이었는데, 이는 당시 일본의 러시아 혁명에 대한 주요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말해준다. 물론 1880년대 일본의 러시아 허무당에 대한 편저역서 모두가 허무당의 활동에 대해 공감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표면적으로는 허무당의 음모, 암살, 간계 등에 대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6) 竹越與三郎著, 『新日本史』(上), 民友社, 1891, 173쪽.

7) 1878년 1월 혁명적 나로드니키, 베라 자술리치(Vera Zasulich)가 페테르부르크 시장 트레포프(Pyodor Trepov)를 저격했다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이후 1878년 8월 헌병대장 메젠체프 암살, 1879년 2월 하리코프 지사 크로포트킨의 암살, 그리고 1879년 4월에는 솔로비요프에 의한 차르 알렉산드르 2세의 암살 기도와 1881년 나로드니키에 의한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2세의 암살 등의 일련의 사건으로 러시아 나로드니키의 암살활동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8) 베라 자술리치의 저격 사건은 암살 활동내용 뿐만 아니라 저격자가 묘령의 여성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폭력을 조장하는 등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는 당시 무력이나 폭력적 방식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 주로 언론과 정당활동을 통한 입헌운동을 추진하던 일본의 상황과 연관이 있다.

그들이 러시아 허무당을 통해 일본사회에 소개한 것은 주로 두 가지 목적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그 중 하나는 러시아 허무당의 자기희생적인 활동을 통해 일본인들의 사회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입헌을 비롯한 정치사회적인 개혁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일본정부 역시 허무당과 같은 테러리즘의 출현을 면할 수 없음을 경고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허무당의 활동을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출귀몰, 용맹성과 결단력, 주도면밀한 계획 등을 장하다거나 통쾌하다고 평하면서 허무당의 혁명운동에 대한 공감과 유대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특히 소마다 사쿠타로는 『魯國奇聞烈女の疑獄』의 서문에서 베라 자술리치의 저격사건을 의로운 행위로 보면서 겁쟁이 남자들을 분기 시키기에 충분하며, 러시아에서 재앙을 예방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재앙을 초래한 사건은 이후 위정자들이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9)</sup>

또 다루이 토키치는 「東洋の虛無黨」(『錦江新誌號外』, 明治15年3月2日)에서 허무당의 취지는 바로 기존의 천하의 모든 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것으로, 현재 사회질서의 통치권이 군주에 의해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군주를 멸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서구에서 허무당이 발흥하는 까닭은 바로 국민들이 개화되어 구제도가 더 이상 개화한 국민에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합중국이나 자유국가보다도 압제국가에서 허무당이 창궐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까닭이라고 주장하였다.<sup>10)</sup> 이와 같이 러시아 니힐리스트의 테러운동을 포함한 혁명운동을 소개한 주요 목적은 허무당 발생의 원인이 압제정치에 있으며 정부가 압제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 허무당의 절멸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 러시아의 제정(帝政)에 대한 비판을 통해 암암리에 메이지의 함바츠(藩閥)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였다.<sup>11)</sup>

9) 柚田策太郎, 『烈女の疑獄: 魯國奇聞』, 由己社, 1882.

10) 樽井藤吉, 「東洋の虛無黨」, 田中惣五郎著, 『東洋社會黨考』, 一元社, 1930, 212-217쪽.

11) 세르게이 스테프냐크(Sergei Stepniak)의 *Underground Russia: revolutionary profiles*

한편 당시 자유민권운동과 관련하여 정치소설의 붐이 일던 시기로, 프랑스 혁명과 더불어 러시아의 혁명운동이 정치소설의 중요한 사상적 자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허무당 소설 역시 당시 정치소설의 일환으로 소개되고 읽혔다고 할 수 있다.<sup>12)</sup>

〈표 1〉 메이지 시기 일본 허무당 소설

제목	저역자	출판사, 출판년도
婦女立志歐洲美談	田島象二 編	廣知社, 1881
魯帝弑逆記(初編, 2編)	大久保常吉 編	漸進堂, 1881
魯國奇聞烈女の疑獄	杉田策太郎 抄譯	由己社, 1882
露國虛無黨事情	西河通徹	競錦堂, 1882
虛無黨退治奇談	川島忠之助	慶應義塾/自費出版, 1882
魯西國虛無黨/冤枉の鞭笞	宮崎夢柳譯, 內藤久人編	成文舍, 1882
鬼啾啾: 虛無黨實伝記	宮崎夢柳譯	旭橋活版所, 1883
魯國虛無黨祕録		自由新聞, 1884
露國安那物語	坂崎紫瀾譯	土陽新聞, 1884
通俗虛無黨形氣	冷冷亭杏雨(二葉亭四迷)	1886(미간)
片手美人	黑岩淚香 譯述	聚榮堂, 1890
魯國奇聞虛無黨	田口掬汀	文藝俱樂部, 1903
虛無黨奇談	松居松葉(眞玄) 譯	警醒社, 1904
虛無黨	塚原澁柿園	1904

\* 이는 木村毅의 『明治文學展望』(東京: 改造社, 1928) 20-48쪽; 大原社會問題研究所編, 『日本社會主義文獻』(第1輯)(同人社書店, 昭和4); 柳田泉, 『明治初期翻譯文學の研究』(春秋社, 1961)를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임.

and sketches from life(Westport, Conn., Hyperion Press, 1882)를 저본으로 하여 역술한 것으로 보이는 미야자키 무류(宮崎夢柳)의 『鬼啾啾: 虛無黨實伝記』도 베라 자솔리치의 저격 사건을 비롯하여 러시아 허무당의 활동을 담고 있으며, 서문에서는 그 번역의 목적을 자유민권운동을 고취하는 데 있다고 말하였다. 세르게이 스테프냐의 이 저서는 당시 일본 사상가들의 러시아 허무당에 관한 지식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또 후대의 일기기는 하지만, 중국에서도 그의 저서 중의 "The Executive Committee to the Emperor Alexander III"(pp. 265-272)가 「俄國革命黨與歷山三世皇帝書」(愚公, 『民報』 第26期, 1910)로 번역되어 소개되기도 하였다.

12) 高須梅溪, 『近代文芸史論』(上卷), 日本評論社, 1921, 99-100쪽; 田中惣五郎, 『東洋社會黨考』, 一元社, 昭和5, 215쪽; 杉山 秀子, 「十九世紀ナロードニキ覺え書き(一)」, 『駒澤大學外國語部論集』 第37號, 1993. 03, 50쪽.

러시아 허무당에 대한 소개는 〈표 1〉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880년대 중반 이후 간헐적으로 보여지다가 다시 러일전쟁 및 제1차 러시아혁명으로 러시아가 전세계적 주목을 받던 시기인 1904년 전후시기에 재차 대두된다. 1904년을 전후한 시기 일본 사상계의 중요한 한 특징은 더 이상 자유민권운동이 아니라 사회주의(무정부주의 포함)가 본격적으로 소개되면서 사회적 주목을 받던 시기였다. 1902년 고토쿠 슈스이(幸徳秋水) 등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게무야마 센타로(煙山專太郎)의 『近世無政府主義』(東京專門學校出版部)의 편찬을 비롯하여 사회주의와 사회당의 활동에 대한 소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와 더불어 러시아의 혁명운동도 또 다시 일본의 사상·문화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 허무당이나 무정부주의에 대한 소개는 일본내의 정치적 개혁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게무야마 센타로의 『近世無政府主義』는 당시 일본에서 러시아의 나로드니키와 유럽의 아나키즘을 가장 체계적으로 소개한 저서로, 그 서문은 당시 일본에서 무정부주의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근래 무정부주의당의 폭력은 실로 매우 참혹하여 듣기만 해도 간담이 서늘케 한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이름은 알지만 그 실질을 알지 못한다. 본서의 편찬이 조금이나마 이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른바 실천적 무정부주의자는 흥폭하고 사나워 천인이 질시(嫉視)하는 바이지만, 그 무지몽매함은 또 자못 동정해야 할 점이 있다. ……본서의 편찬은 완전히 역사적 연구를 통해 이 망상자와 열광자가 어떻게 실제로 현실사회에 출현하게 되었는가와 그 연원 및 발달을 밝혀 보고자 한다.”<sup>13)</sup>

게무야마 센타로는 일본의 근대 법학자이자 사회학자로서 1902년 이후 일본에 유학한 중국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아리가 나가오(有賀長雄)에게서 철학을 배웠으며, 주로 독일과 프랑스의 저자들의 저서와 일부 영문저서를 참고하여 『近世無政府主義』를 저술하였다.<sup>14)</sup> 게무야마 센타로는 위 저서의 서문에서 이탈

13) 煙山專太郎, 『近世無政府主義』, 東京專門學校出版部, 明治35年.

14) 煙山專太郎, 앞의 책, “參考書目” 참고.

리아 정신의학자 롬브로소(Lombroso, Cesare, 1836-1909)의 말을 빌어 무정부주의를 일종의 병리적인 현상으로 보고, 아나키스트를 망상적 열광자로 간주하였다. 이는 1880년대 민권운동시기 허무당에 대한 일본의 관심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실제로 게무야마 센타로의 이 저서는 고토쿠 슈스이(幸徳秋水)에게 영향을 주기는 했지만<sup>15)</sup>, 일본의 아나키즘 운동에 미친 영향은 매우 미약했다. 그럼에도 이 저서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까닭은 바로 당시 일본에 유학한 중국학생과 혁명운동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sup>16)</sup>

1902년은 무술변법의 실패와 의화단의 난 이후 중국인들이 일본에 정치적 망명을 하거나 유학을 하면서 새로운 서구정치사상을 본격적으로 접하고, 그것을 각종 여러 잡지들을 통해 소개하기 시작하던 시기이다. 또한 청일전쟁 이후 제기된 일본 메이지 유신 모델론에 따라 량치차오 등을 비롯한 중국의 개혁적 지식인들이 일본의 메이지 시기 전반기 자유민권운동에 주목하고 서구의 정치, 사회, 철학 등 서구의 계몽사상과 더불어 정치소설을 제창하기 시작하던 때이기도 하였다. 여기에 의화단의 난 이후 러시아의 동북지역에 대한 점거로 반러시아 운동이 전개되고, 이어 러일전쟁이 발발하면서 러시아 혁명운동과 더불어 허무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복합적인 계기를 통해 20세기 초 중국의 본격적인 계몽운동과 정치적 혁명운동은 처음부터 러시아 혁명운동 및 허무당의 활동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진행되었다. 게무야마 센타로의 『近世無政府主義』는 저자의 의도와 달리 중국인 유학생 및 혁명가들에게 러시아 허무당과 유럽 무정부주의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사상적 통로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15) 1905년 이전 고토쿠 슈스이조차도 무정부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그가 1902년에 쓴 『社會主義長廣舌』(人文社) 가운데 「無政府的製造」에서 무정부당의 독해(毒害)를 비판하는 내용이 나온다. 또 1904년에 쓴 『與露國社會黨書』(『平民新聞』18號, 1904.3.13.)에서는 자신을 허무당이나 테러리스트와 구분하여 사회민주당의 신봉자라고 주장하였다.(김석근, 「고토쿠 슈스이(幸徳秋水)의 무정부주의」, 『동양정치사상사』 제7권1호, 2008, 53쪽) 고토쿠 슈스이가 사회주의자에서 아나키즘으로 선회한 것은 1905년 이후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석근, 앞의 논문; 유병관, 「고토쿠 슈수이(幸徳秋水)의 제국주의 비판과 일본 아나키즘의 수용과정」, 『일본연구』제41호, 2009, 25-44쪽 참고.

16) 中村哲夫, 『同盟の時代——中國同盟會の成立過程の研究』, 京都: 人文書院, 1992, 109쪽.

### 3. 허무당의 소개와 담론의 형성

중국에서 러시아 허무당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는 1902년부터 진행되었다.<sup>17)</sup> 마쥬우(馬君武)가 1902년 토마스 커컵(Thomas Kirkup)의 『사회주의 역사』가운데 제 9장 “ANARCHISM”<sup>18)</sup>을 중심으로 번역한 『俄羅斯大風潮』를 비롯하여 자오비진(趙必振)이 번역한 후쿠이 준조(福井準造)의 『近世社會主義』, 중국국민총서사(中國國民叢書社)에서 번역한 고토쿠 슈스이의 『社會主義廣長舌』, 작신도서사(作新圖書社)에서 번역한 시마다 사부로(島田三郎)의 『社會主義概評』 등이 1902-1903년 사이에 중국에 소개되었다. 비록 이들 저서의 전체 내용 중 일부 분만이 허무당이나 아나키즘에 관한 내용이지만, 새로운 시대적 사조로 부각된 사회주의의 일환으로서의 아나키즘이나 허무당의 활동을 적극 소개하고 있다. 물론 아나키즘을 무정부주의로 번역하고 허무당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중국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앞서 말한 게무야마 센타로(煙山專太郎)의 저서였다. 러시아 나로드니키와 유럽의 아나키즘을 전문적으로 소개한 이 저서에 대한 중국어 번역은 1904년 진이(金一, 즉 金天翮)가 『自由血』(東大陸圖書譯印局印/鏡今書局)<sup>19)</sup>이라는 제목으로 의역한 것이 있지만, 그 이전에 이미 많은 중국의 잡지들에서 부분적으로 인용하거나 발췌하는 방식으로 러시아의 허무당을 소개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sup>20)</sup>

17) 중국에 러시아 나로드니키의 활동이 처음 소개된 것은 1879년 『萬國公報』 제12책에 게재된 「尼黨逆書」이며, 1881년 러시아 황제 알렉산더 2세의 암살 사건 이후 같은 해 6월부터 1883년 3월까지 『萬國公報』에 6차례에 걸쳐 나로드니키의 활동이 「난당(亂黨)」의 소행으로 소개되었다. 第十三年六百四十五卷(1881.6.25), 第十三年六百四十七卷(1881.7.9), 第十三年六百五十卷(1881.7.30.), 第十四年六百七十五卷(1882.1.28), 第十四年六百九十卷(1882.5.20.), 第十五年七百三十一卷(1883.3.17.) 참고.

18) Thomas Kirkup, A history of socialism, A. and C. Black, 1892, pp. 183-215.

19) 이 역서는 기본적으로 게무야마 센타로의 저서를 의역한 것이지만, 제3장 「俄國政府之內容及其壓制政策」은 원본 이외의 자료를 참고하여 번역한 것이며, 또 각 장의 순서도 원본과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20) 대표적인 것으로는 「俄國虛無黨三傑傳」(『大陸雜誌』 제7호, 1903), 「俄羅斯的革命黨」(『童子世界』 제33호, 1903), 「俄國虛無黨女傑沙勃羅克傳」(『浙江潮』 제7호, 1903), 「俄皇亞歷山大第二之死狀」(『國民日日報』 1903), 「論俄羅斯虛無黨」(『新民叢報』 第四十、四十一號, 1903), 「俄國虛無黨源流考」·「神聖虛無黨」·「俄虛無黨之斬妖狀」(이상 세 편은 『警鐘日

중국의 역자 및 소개자들이 러시아 허무당과 관련하여 주목한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1881년 알렉산드르 2세를 폭탄으로 암살한 소피아 페로프스카야(Sophia Perovskaia)를 포함한 허무당원의 활동이고, 다른 하나는 전제주의에 대항하는 러시아 허무당의 전반적인 혁명운동이었다. 이 중 전자 특히 소피아 페로프스카야의 활동에 주목하였는데, 이는 1880년대 일본에서의 러시아 허무당의 열기가 베라 자술리치라는 여성 혁명가와 연관이 있었던 것과 매우 유사하다. 다만 그 대상이 베라 자술리치가 아니라 소피아 페로프스카야였다는 점이 다를 뿐이었다. 귀족가문의 출신으로 자유와 민중을 위해 전제정부의 억압에 맞서 자기희생적으로 혁명에 참여한 묘령(妙齡)의 소피아는 혁명운동을 고취하는 데 유익한 스토리를 제공하였다. 이는 소피아에 관한 전기의 중점이 알렉산드르 2세에 대한 폭탄테러보다도 평소의 혁명가로서의 품성과 사형선고를 받고 형 집행 현장에서 보여준 의연한 모습 등이 강조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중국에서 소피아 페로프스카야를 가장 먼저 자세히 소개한 것은 任克의 「俄國虛無黨女傑沙勃羅克傳」이며<sup>21)</sup> 그 후에도 「露國革命之祖母婆利蕭斯楷傳」<sup>22)</sup>,

報』, 제28, 35, 38-40, 46-47, 49-50, 52-54, 64-65號, 1904)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虛無黨小史」(『民報』, 第十一號, 第十七號, 1907), 「俄國虛無黨之諸機關」(『漢職』 第一期, 1907) 역시 게무야마 센타로의 저서를 저본으로 삼고 있다. 한편 게무야마 센타로의 저서에서는 러시아 허무주의를 아나키즘과는 다르지만 당시 가장 극단적인 혁명주의(사회주의와 동일한 것은 아님)로 발전해왔다는 점에서 허무주의를 무정부주의의 특수한 형태로 보고 있으며, 알렉산드르 3세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3세의 등극 전 후시기까지만 서술하고 있다. 또 그의 서문에서는 아나키즘을 극단적 혁명주의로 간주하는 그의 입장이 나타나 있으며, 아나키즘의 번역어인 무정부주의도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21) 任克, 「俄國虛無黨女傑沙勃羅克傳」, 『浙江潮』 第7期, 1903, 115-120쪽. 이 문장과 無首의 「蘇菲亞傳」은 모두 게무야마 센타로 저서 중 전편(前編) 제6장 “虛無黨之女傑”(244-262쪽, 베라 자술리치와 소피아 페로프스카야, 제시 헤프만(Jessie Helfman)을 소개)에서 소개한 3명의 여성 나로드니키 가운데 소피아 페로프스카야만을 번역한 것이다. 이상 3명의 여성 혁명가 가운데 유독 소피아 페로프스카야가 당시 중국에서 주목을 받았던 것은 소피아의 감동적인 스토리도 한 요인이지만, 게무야마 센타로 저서 자체의 영향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게무야마 센타로는 비록 3명의 여걸이라고 호칭하였지만, 소피아에 대해서는 크로포트킨의 회고록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그녀의 행적은 물론 평소의 성품, 사형집행시의 일화 등을 자세히 소개한 반면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2쪽 분량의 활동내용 위주로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22) 公權, 『天義報』 第4卷, 1907.7.

「蘇菲亞傳」<sup>23)</sup> 등과 같이 반복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또 그녀 이외에도 러시아 나로드니키의 창시자인 헤르첸(Herzen Aleksandr Ivanovich), 체르니셰프스키(Chernyshevski, Nikolai Gavrilovich), 미하일 바쿠닌(Mikhail Aleksandrovich Bakunin)의 활동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이들의 활동을 통해 러시아에서의 혁명사상의 흥기, 특히 나로드니키 운동의 형성과정과 주요 특징을 소개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俄國虛無黨三傑傳』<sup>24)</sup>이다.

두 번째는 러시아 허무당의 활동에 대한 역사적 서술이다. 러시아 허무당의 일반적인 역사에 관해서는 일찌기 자오비진(趙必振)이 번역한 『近世社會主義』나 작신도서사(作新圖書社)에서 번역한 『社會主義概評』에서도 소개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사회주의의 역사를 전체 3기로 구분하고 그 중 제3기에 속하는 근세의 사회주의의 한 현상으로서 무정부주의 및 그 당원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무정부주의란 모든 정부와 도덕, 계급을 부정하는 파괴주의라고 보고, 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회개량, 자유신장, 빈부격차 없는 평등을 달리 실현할 방법이 없어 암살, 방화 등의 극단적인 폭력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사회의 공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sup>25)</sup> 각국의 사회주의 소개를 중심으로 하는 『社會主義概評』은 러시아의 사회주의와 관련하여 주로 허무당을 중심으로 허무주의의 의미, 알렉산드르 2세의 암살, 헤르첸, 체르니셰프스키, 바쿠닌 등의 활동을 소개하였다. 다만 허무당의 활동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에 비해 “독립적인 개인(獨立之個人)”이라는 필명으로 『俄羅斯大風潮』를 번역한 마쥔우는 서구의 사회주의와 진화론 두 사상이 함께 새로 배태시킨 것이 무정부주의로 사회사상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전제정부에 맞서 언론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러시아 나로드니키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였다.<sup>26)</sup> 또 게무야마 센타로의 저서에 대한 역서인 『自由

23) 無首, 『民報』第15號, 1907, 119-125쪽.

24) 「俄國虛無黨三傑傳」, 『大陸報』第七冊, 1903年6月5日. 이 문장은 게무야마 센타로 저서 중 전편(前編) 제2장 “虛無主義의 鼓吹者”(31-76쪽)를 번역한 것이다.

25) 趙必振, 『近世社會主義』(1903, 廣智書局), 上海時代書店印行, 1927, 178-179.

26) 葛懋春·蔣俊·李興芝編, 「俄羅斯大風潮·序言」, 『無政府主義思想資料選』(上), 北京大學出版社, 1984, 1-2쪽.

血』의 서문에서 역자 진이(金一)는 “허무당은 자유의 신이며 혁명의 최선봉이자 전제정치적 적이다”라고 허무당의 혁명적 활동을 평가하고, 중국인들도 허무당의 분투하는 바를 알아야 한다고 주문하였다.<sup>27)</sup> 그러나 무엇보다 이러한 단행본보다도 러시아의 허무당과 관련된 소개는 『신민총보(新民叢報)』, 『강소(江蘇)』, 『정예통보(政藝通報)』, 『민보(民報)』 등 당시 중국사회에 영향력이 상당했던 잡지들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표 2〉 참고)

의회단의 난 이후 중국의 전제주의에 대한 비판과 자유 및 민권사상을 중심으로 한 계몽 시기에, 자유를 위해 헌신적인 러시아 허무당의 활동은 중국인들의 분투를 자극할 수 있는 좋은 사상적 자원이었다. 특히 당시 러시아는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점령과 러시아 내부의 끊임없는 혁명적 활동으로 중국인의 주목을 받았으며, 강력한 전제통치에 맞서 개혁이나 혁명을 추진해야 하는 점에 있어서 중국 지식인들에게 동시대적인 참조모델이었다. 허무당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가 이루어진 것도 재일본 중국유학생 및 정객들 사이에서 혁명과 개량을 둘러싸고 정치적 분화가 점차 진행되던 1903년부터였다. 이 시기에 각기 다른 사상적 경향의 번역서들과 잡지들이 출간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잡지들은 입헌적 개혁과 반민주적 혁명을 둘러싼 사상담론 논쟁에 적극 참여하면서 독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담론적 상황에서 러시아 허무당에 대한 소개 역시 잡지가 표방하는 사상적 경향성에 따라 중점 및 관점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먼저 허무당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것은 혁명과 진영이었다. 앞서 任克의 「俄國虛無黨女傑沙勃羅克傳」을 게재한 『절강조(浙江潮)』를 비롯하여 『강소(江蘇)』, 『정예통보(政藝通報)』 등 혁명적 경향을 보이던 잡지들은 허무당을 중국의 혁명과 연계시켜 담론화하였다. 『절강조』는 소피아의 전기를 소개하기에 앞서 「虛無黨製造家」에서 알렉산드르 2세에 대한 8차례의 암살과정을 소개하면서 군대와 경찰력 등 가장 강력한 무장력을 갖춘 러시아 전제군주가 어떻게 살해될 수 있었는가 의아해하며, 허무당을 조장하는 것은 다름 아닌 러시아 전제군주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삼엄한 경계능력을 갖춘 러시아 황제도 암살을 면치 못했는

27) 「自由血·緒言」, 葛懋春·蔣俊·李興芝編, 앞의 책, 53-54쪽.

데, 그러한 방비능력도 없는 전제군주는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도 쉽게 제거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28)</sup> 이와 같이 중국의 청 왕조에 대한 경고이자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허무당과 같은 활동을 자극하는 논조는 혁명과 진영이 허무당을 소개하는 기본적인 서술방식이다.

輟孫의 「露西亞虛無黨」<sup>29)</sup>은 당시 중국인들 사이에 혁명론이 구두선처럼 확대되고 있음에도 대부분 말뿐이고 실제적으로는 혁명가적인 정신과 의지력이 부재하다고 비판하였다. 나아가 세상에서 허무당을 잔혹하다고 비판하지만 정작 잔혹한 것은 전제군주라면서 국민들이 잠들어 각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온 세상을 진동시킬 파괴적인 활극을 통해 일깨워야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허무당과 같은 혁명가들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馬敘倫 역시 무정부주의는 20세기 새로운 사상조류로, 러시아에서 무정부주의가 발전한 까닭은 바로 러시아의 전제정부 때문이지만, 러시아는 무정부주의 운동을 통해 20세기 세계문명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현재 중국은 러시아만큼 전제적이지는 않지만, 장차 중국이 더욱 전제의 폭정을 할수록 중국인들은 더욱 그 해로움을 깨닫고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보았다.<sup>30)</sup>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가 말하는 신사조는 아나키즘을 말하는 것이지만, 중국에서 그것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는 러시아 허무당에 대한 당시의 일반적 논조에 기반하여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해 량치차오가 『新民叢報』에 「論俄羅斯虛無黨」<sup>31)</sup>을 발표한 것은 당시 혁명담론 하에서 허무당에 대한 세인의 주목이 더 커지고, 허무당 관련 담론이 확산되는 상황과 연관이 있다. 당시 중국의 전제주의를 비판하고 자유사상을 강조하는데 누구보다도 적극적이었던 량치차오는 러시아 허무당을 단순히 혁명적 선동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경계하면서 허무당에 대해 역사적으로 조망하고 그 득실을 논하였다. 그는 먼저 게무야마 센타로의 설명방식에 따라 러시아 허무당의 역사를 문학혁명시기, 연설선동시기, 암살공포시기로 구분하고, 혁명주의로서의 허무당

28) 「虛無黨製造家」, 『浙江潮』第三期, 1903年4月17日.

29) 輟孫, 「露西亞虛無黨」, 『江蘇』第四期, 1903年6月25日.

30) 馬敘倫, 「二十世紀之新主義」, 『政藝通報』, 癸卯年14-16, 1903年8月-9月.

31) 中國之新民, 「論俄羅斯虛無黨」, 『新民叢報』第四十・四十一號, 1903年11月2日.

이 암살공포를 주요 수단으로 삼게 된 것은 프랑스 혁명처럼 폭동의 방식으로는 혁명주의를 실현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sup>32)</sup> 또 허무당의 종지는 빈부평등과 토지소유권 개혁을 중심으로 한 무정부주의인데, 이러한 주장은 반대세력인 귀족들의 저항으로 실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개인적으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하지만 허무당이 암살이라는 수단을 통해 경제적 요구에서 입헌제의 도입과 언론출판, 연설의 자유 등 정치적 개혁으로 중점이 변화해가는 것은 허무당의 진보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테러리즘을 포함한 허무당의 활동방식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기쁘게 하고, 흠모하거나 숭배하도록 하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량치차오는 입헌제를 주요 핵심으로 하는 자신의 정치적 개혁의 관점에서 허무당을 평가하고 있다. 혁명파들이 주로 전제와 혁명이라는 대립구도 하에서 허무당의 헌신적이고 자기희생적인 활동에 주목하였다면, 그는 허무당의 종지와 발생 원인에 보다 주목하고 사회주의적 혁명에 반대하였다. 그러면 서도 허무당원들의 활동을 숭고한 정신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러시아에서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그 전체적인 원인이 바로 전제군주의 억압에 있다고 본 것은 혁명파와 차이가 없다. 이러한 시각은 혁명에 대한 그의 정치적 관점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1904년 사조노프(Yegor Sozonov)가 러시아 내무대신 폰 플레베(Vyacheslav von Plehve)를 암살하자, “핀란드의 비수, 허무당의 폭탄 테러”에 대해 장엄하고 위대하며 통쾌하다고 찬사를 보내기도 하였다.<sup>33)</sup> 이와 같이 당시 중국의 개혁적 지식인들이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 허무당의 활동에 대해 보여주는 태도는 중국에서 허무당 소개의 동기와 중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그리고 허무당의 증후군이 형성된 이유를 잘 말해준다.

32) 러시아에 폭동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량치차오는 그 주요 원인으로 혁명활동이 소수의 사람에 의해 진행되고 다수의 참여가 없다는 점, 전제정부의 중앙군대 힘이 막강하다는 점, 주로 귀족이 거주하는 중앙지역이 아니라 지방에서 혁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또 폭동을 준비하고 진행하기 위한 활동자금의 부족 등을 들고 있다.

33) 飲冰, 「俄國虛無黨之大活動」, 『新民叢報』第51號, 1904, 74쪽; 飲冰, 「俄國新內務大臣」, 『新民叢報』第56號, 1904, 70쪽. 이 사건에 대한 또 다른 보도는 「俄國專制家之歷史」, 『大陸』第2卷第8期, 1904, 14-15쪽. 참고.

#### 4. 허무당의 탈역사화와 소설화

20세기 초 중국에서 허무당은 혁명정신의 기호이자 알레고리였다. 그 방법의 옳고 그름, 그 성패에 관계없이 허무당의 활동은 중생을 전제의 억압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sup>34)</sup>하는 화신으로 간주되었다. 허무당이 추상적 정신의 차원으로 승화한 것은 처음 허무당 담론의 형성과정에서 그 중점이 그들 활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인식에 있기보다는 자기희생적 혁명활동 그 자체에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허무당 활동이 비록 거의 동시대적으로 전개된 역사적 실재과정이었음에도 중국인들에게 러시아의 정치는 물론 사회문화에 대한 정보가 극히 한정적이었다는 점과 허무당 활동 자체가 비공개적이고 신비한 점이 많았다는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러시아 허무당은 실제성에 의한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다양한 의미를 파생시킬 수 있는 기호가 될 수 있었다.

허무당은 1880년대에 니힐리스트에 대한 일본의 번역어이지만, 당시 니힐리스트이든 아니면 교무토우(虛無黨)든 20세기 초에 중국어 “취우당(虛無黨)”으로 번역되었을 때, 그 의미는 니힐리스트나 교무토우 대상어의 원의보다도 한자의 “虛無”와 허무당의 이름으로 소개되는 내용의 성격에 의해 구성되었다. 허무당의 의미에 대한 비교적 자세한 설명은 「俄國虛無黨源流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연재된 문장에서 저자는 헤르첸의 주장과 투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을 인용하며 허무주의를 신과 하늘, 정부를 부정하는 신사회 제도이자 신세계의 종교이고, 비판적 시각으로 모든 것을 관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렇지만 “虛無黨”이라는 명칭은 러시아 사람들이 스스로 붙인 것이 아니라 서남(西南) 유럽 사람들이 파괴주의에 대해 붙인 명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sup>35)</sup> 즉 “虛無黨”은 러시아 혁명 활동에 기반해 있지만, 그 혁명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어라기보다는 그 가운데 특정한 활동방식에 대한 서구인들의 명명이라는 것이다.

34) “虛無黨員者發願流血以救衆生者也”, 中國之新民, 「論俄羅斯虛無黨」, 『新民叢報』第四十·四十一號, 1903. 14쪽.

35) 「俄國虛無黨源流考」, 『警鐘日報』第35號, 1904.3.31. 게무야마 센타로 역시 허무주의를 부정주의(否認主義), 파괴주의이자 러시아 특유의 혁명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煙山專太郎, 앞의 책, 5쪽.

『江蘇』, 『浙江潮』 등에서도 허무주의 사상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고, “虛無黨”도 러시아혁명, 사회주의, 무정부주의와 상호 연계되거나 혼호(混淆)되어 소개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테러방식을 통한 전제정체(專制政體)에 대한 저항이라는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국에서 “虛無黨”의 의미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러시아 혁명 관련사건 보도였다. 러시아 혁명에 관한 많은 기사가 바로 테러활동이었고, 그 활동 주체는 다수가 “虛無黨”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다. 더 나아가 세계 각처의 테러 활동에 대해서도 그 주의와 주장에 관계없이 허무당의 소행으로 간주되었다. 그 가운데는 스페인의 허무당의 뇌물 매수와 같이 실제 허무당과는 관계없는 사건보도도 적지 않다.<sup>36)</sup> 또 청말 소설가이자 비평가인 왕중치(王鐘麒)는 중국의 전통소설 『수호전』을 허무당 소설로 평가하기도 하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소설에서 원한을 복수하고 탐관오리에 폭력을 가했다는 점을 들었다.<sup>37)</sup>

이와 같이 “虛無黨”의 의미가 테러활동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虛無”의 의미에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처음 종교나 국가, 전통규범 등에 대한 부정과 비판적 태도라는 의미의 번역어인 “nihil-虛無”는 이제 허무당의 신비스러운 활동방식의 특징에 대한 규정으로 바뀌었다. 즉 “허무는 비밀스러운 명사이다”<sup>38)</sup> 라든가, “러시아 백성은 전제정부를 대상으로 혁명하기 위해 허무당을 조직하였는데, 이는 곧 비밀스러워 붙잡을 수가 없다는 의미이다.”<sup>39)</sup> 여기서 “虛無”는 종적이 없다는 의미로서, 더 이상 니힐리즘/허무주의와 관계가 없다.

이와 같이 허무당의 의미의 변화는 1906년 이후 두드러진다. 그 이유는 첫째,

36) 「俄皇亞歷山大二世之死狀」, 『國民日日報滙編』第1集, 1904; 「俄國革命黨之風潮」, 『鷺江報』第81期, 1904, 15쪽; 「神聖虛無黨」, 『警鐘日報』第146號, 第156號, 1904. 7. 20, 30; 「西班牙虛無黨之價值」, 『競業旬報』第11期, 1908, 34쪽; 「賄賂虛無黨免殃」, 『大同報』第9卷第9期, 1908, 28-29쪽; 「英國嚴防虛無黨」, 『大同報』第9卷第19期, 1908, 29쪽; (英)高葆真·徐惟岱, 「北印度之虛無黨」, 『大同報』第9卷第23期, 1908, 7-9쪽; (英)高葆真, 「印度虛無黨之又出現」, 『大同報』第10卷第17期, 1908, 7-8쪽; 「虛無黨火彈之出現」, 『大同報』第9卷第9期, 1908, 30쪽.

37) 天廖生, 「中國三大家小說論贊」, 『月月小說』第14號, 1908.3.

38) “虛無者祕密之名詞”, 亞朔「虛無黨之行爲」, 『漢職』第1號, 東京: 1907. 3. 9.

39) “俄國百姓爲革專制政府的命, 組織有虛無黨, 卽祕密不可捉拿的意思.” 「俄國虛無黨之炸彈」, 『第一言話報』第7期, 1906, 36쪽.

무정부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가 이루어지면서 허무당의 의미가 이것들과 구분되기 위해 사상적인 것보다는 행동적인 양식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05년 러시아 혁명을 계기로 러시아 혁명이 이미 허무당이 주도하던 19세기 후반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民報』(1905, 東京), 『天義報』(1907, 東京), 『新世紀』(1907, 파리) 등의 창간으로 사회주의와 무정부주의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동시대의 러시아 혁명은 이제 허무당과 구분되었고, 단순한 테러 활동보다는 주의와 주장과 같은 사상적이고 이론적인 측면에서 더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수반되어 허무당은 이제 러시아 혁명과 유리되어 보다 넓은 의미에서 암살이나 테러활동의 의미와 밀착되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이상 혁명운동이나 사건보도 이외에도 허무당의 담론 형성에 소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허무당 담론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나가는 데는 오히려 소설이 훨씬 더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허무주의는 본래 러시아혁명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혁명당 가운데 허무론자가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양자를 합하여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이 이치는 너무나 당연하여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결국 양자를 동일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평소에 확실하게 들은 바가 없고 일반 소설에서 오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서구 사람들은 아직 양자를 확실히 구분하지 못한다.……더욱이 우리나라는 한 두 소설에서 말하는 것을 실제 역사로 간주하고 있다(러시아 소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국소설 가운데도 가치가 있는 것이 있지만 중국에서 번역한 것은 대부분 그러한 것이 빠져있다). 작가도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찌 믿을만한 것을 전할 수 있겠는가? 단지 임시방편으로 지어낸 것일 뿐이다.”<sup>40)</sup>

40) “虛無主義本不足該俄國革命. 謂革命黨有虛無論者可, 若合二者而一之, 斯惑矣. ……此理至明顯, 本不待煩言而解者, 然吾國卒比而同之, 是有數故, 要由素無確聞, 而一般小說有以誤之也. ……然則西歐之士, 尚未能曉然知二者之分; 今從而拾之傳聞益訛, 又胡可免. 而吾國更有據一二小說所言, 爲之信史者, 夫在作者且未深知其事, 更何能傳信(俄國小說不在此例, 外國著作中亦有有價值者, 特中國所譯多非其選), 蓋亦唯姑造作之耳.” 獨應(周作人), 『論俄國革命與虛無主義之別』, 『天義報』第11-12合刊, 1907. 11.

저우쥘런의 이러한 비판은 당시 중국에서 허무당 담론의 성격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는 허무당과 러시아혁명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당시 소설들이 정확한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혼용하여 사용하고 지어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허무당이 중국의 소설작품의 세계와 접맥된 것은 1902년 11월 량치차오가 『신소설(新小說)』잡지를 발간함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신소설(新小說)』이 정치소설을 통해 자유민권 사상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창간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잡지의 주요 기고자는 소설가로서보다는 계몽가 혹은 혁명가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소설로 풀어내고자 하였다. 그 중에 주목할 것은 창간호부터 제 5호까지 역사소설이라는 분류하에 연재된 위이여사(羽衣女士(즉 羅普)의 「동구여호결(東歐女豪傑)」이다.

“이 책은 전적으로 러시아 민당(民黨)의 사실을 서술한다. 여호결 베라 자슬리치와 소피아 페로프스카야, 제시 헤프만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운동의 역사 전체를 포함할 것이다. 대저 애국적인 미인이 많기로 러시아 만한 것이 없다.…… 가장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전체적인 국가에서 태어나 수천 명의 지사들의 피를 희생하여 장래의 행복을 추구하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그 세력도 날로 더더욱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애국자들도 모두 이를 가장 중요한 비책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sup>41)</sup>

이상 『신소설』 발간 예고 광고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동구여호결」은 게 무야마 센타로의 저서에서 허무당의 3걸이라고 소개한 세 사람을 중심으로 러시아 허무당 혁명운동을 소설로 연의(演義)한 것이었다. 『신소설』에서 이 소설을 창간과 더불어 게재한 것은 그 잡지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기획하에 이루어진 것

41) “此書專敘俄羅斯民黨之事實，以女豪傑威拉、莎菲亞、葉些三人爲中心點，將一切運動的歷史，皆納入其中。蓋愛國美人之多，未有及俄羅斯者也。……，以最愛自由之人而生於專制最烈之國，流萬數千志士之血，以求易將來之幸福，至今未成，而其志不衰，其勢且日增月盛，有加無矣。中國愛國之士，各宜奉此爲枕中鴻秘者也。”「中國唯一之文學報」，《新民叢報》第14號 1902. 8.

이었다. 그 역사소설 항목하에 기획된 작품으로는 이 이외에도 프랑스혁명을 연의한 「홍수화(洪水禍)」, 미국 독립운동을 연의한 「자유종(自由鐘)과 「19세기연의(十九世紀演義)」, 「로마사연의(羅馬史演義)」 등이 있었다. 이러한 소설들은 바로 서구의 혁명운동을 소설이라는 양식을 통해 선전하기 위한 일환으로 쓰여진 것이었다. 이는 일본의 민권운동시기에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혁명운동을 빌어 자유민권 사상을 선전하고 정부에 대해 경고성 비판을 하려했던 것과 같은 취지일 뿐만 아니라 비록 역사소설로 분류되기는 했지만, 일본의 정치소설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저자 뤼푸(羅普, 1876~1949)는 캉유웨이의 문하생으로 량치차오의 신문잡지 발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입헌과 민권운동을 전개했던 인물이다. 뤼푸는 허무당의 주장 가운데 사회주의적 요소나 가치규범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대해 중국 현실과 일정한 괴리가 있음을 지적하였다.<sup>42)</sup> 비록 러시아의 허무당이 서구의 근대적 계몽운동과는 일정한 거리를 둔 반계몽주의 운동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었지만, 그는 반전제주의 자유민권을 위한 혁명적 투쟁을 고취하는 것으로 허무당을 이미지화 하였다.

「동구여호걸」이 연재되고 있던 1903년 반청혁명의 성격이 강한 재일본 유학생 잡지인 『절강조(浙江潮)』가 창간되었는데, 그 창간호와 제3호의 소설란에는 바로 데쉐성(喋血生)의 「전제호(專制虎)」가 게재되었다. 「전제호」는 표면적으로는 탐정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허무당의 비밀스러운 활동에 대한 서술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러시아 조정은 독사나 맹수보다 더 가혹한 정치로써 국민을 대하고 있고, 흉악하고 민첩한 탐정이 그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지만, …… 허무당은 기꺼이 목이 잘리고 피를 흘리는 것을 감내하며 시베리아 유배지를 극락세계로 여기고 매일 끊임없이 폭탄으로 정부에 맞대응하고 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그 비밀활동의 지식과 수단이 늘어나고 있다. 탐정의 활동도 기이하지만 허무당의 수단은 더욱더 기이하다.”<sup>43)</sup> 작품에 대한 이상의 간략한 설

42) 소설은 뤼푸에 의해 창작되었지만, 소설의 상단과 중간 및 말미 부분에는 담호객(談虎客)의 비평적 설명이 병기되어 있다. 담호객은 역시 량치차오, 뤼푸 등과 함께 민권-입헌운동에 종사하던 한원취(韓文舉)인데, 그는 허무당의 주장이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서구사회에서 경제문제가 사회사상의 중요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지만, 중국사회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 허무당의 활동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명은 허무당을 제재로 한 소설의 세 가지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전제(專制)에 대한 비판이고, 다음으로는 허무당의 자기희생적 활동이며, 세 번째는 허무당의 비밀스럽고 기이한 행적이다.

『신소설』과 『절강조』에서 창간호에 허무당 관련 소설을 게재하고 연재했다는 것은 당시 허무당이 계몽이나 혁명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중요한 사상적 자원이자 제재로 받아들여졌음을 말해준다. 특히 『절강조』에서 정치소설이나 역사소설과 같이 그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당시 외국소설의 번역을 통해 중국독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탐정소설로 소개한 것은 허무당의 제재를 대중적인 취미와 연계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허무당을 혁명담론의 대중화와 연관시켜 소설이라는 양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개한 사람은 진텐허(金天翮, 1874-1947)와 천징한(陳景韓, 1878-1965)이었다. 진텐허는 일찍이 1903년 상하이 혁명단체 애국학사(愛國學社)에 가입하여 혁명활동을 하였으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904년에는 게무야마 센타로의 『근세무정부주의』를 번역한 『자유혈』<sup>44)</sup>을 출판하기도 하였다. 이 번역서에서 그는 여성허무당에 대해 “허무당 여결은 누구인가? 하늘의 선인(仙人)이 인간으로 변신한 것이며, 혁명을 품고 있는 꽃이자 자유를 잉태한 어머니이다”라고 하면서 허무당 여결의 활동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소개하였다.<sup>45)</sup> 이어서 『自由血』 번역 직후에 재일본 유학생의 혁명잡지인 『강소(江蘇)』에 기린(麒麟)의 필명으로 「얼해화(孽海花)」제1-2회를 발표하기도 하였다.<sup>46)</sup> 그는 이 소설을 “중러교섭, 파미르경계 사건, 러시아 허무당 사건, 동3성 사건” 등을 중심으로 한 “정치소설”로 기획하여 출판하려고 했지만, 결국 6회만을 저술하여 출판하지 못하고<sup>47)</sup> 소설림사(小說林社)를 설립한 청푸(曾朴)와 함께

43) “俄廷既以較毒蛇猛虎更狼之苛政.應酬國民. 且有一群猙獰靈警之探偵爲餓虎作俵.……然以虛無黨則以斷頭啜血爲滋味. 以西比利亞配地爲極樂世界. 日日以爆烈丸討政府之應酬不止. 間有小挫却增彼一番祕密舉動之智識手段.…… 探者奇, 虛無黨之手段更奇.” 喋血生, 「專制虎」, 『浙江潮』第1期, 1903.

44) 金一, 『自由血』, 鏡今書局, 1904.

45) “虛無黨女傑者, 何也? 彼天仙之化人也, 彼孕革命之花而胎自由之母也.” 金一, 『自由血』, 鏡今書局, 1904, 125쪽.

46) 麒麟, 「孽海花」, 『江蘇』第八期, 1904. 1. 17.

60회로 재구성한 후 청푸가 완성토록 하였다.<sup>48)</sup> 『얼해화』에서도 러시아 허무당, 특히 여성 허무당원은 중요한 모티브이다. 제15-17회에서는 러시아 허무당 샤야리(夏雅麗)의 활동을 중심으로 허무당의 활동과 주의 등을 소개하고 있다. 진텐허가 허무당 특히 여성 허무당의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당시 그의 여권운동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연관이 있다.<sup>49)</sup>

이상 「동구여호걸」과 「얼해화」가 러시아 여성허무당을 제재로 하여 중국의 국내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혁명적 사상을 고취하는 창작소설이라면, 천징한은 주로 허무당 관련 소설번역을 통해 중국에 허무당 증후군을 확산시켰다. 천징한은 1904년 『허무당』이라는 소설 번역서를 출판하였다. 이 소설집은 영국의 탐정소설가 코난 도일(Sir Arthur Conan Doyle)의 작품을 번역한 「白格氏」<sup>50)</sup>와 일본 와타나베 타메조(渡邊爲藏)와 타구찌 키쿠테(田口掬汀)가 쓴 미상의 작품을 번역한 「綺羅紗夫人」 및 「加須克夫氏」<sup>51)</sup> 등 세 편의 소설을 번역하여 묶은 작품집이다. 그는 이 소설집에 앞서 탐정소설집을 번역하여 출판한 바 있으며 이 소설집 역시 처음에는 탐정소설의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그러나 다른 탐정소설과 달리 허무당을 중심으로 독특한 스토리 전개양상을 지니고 있어 별도로 『정담담증간: 허무당(偵探談增刊: 虛無黨)』이라고 제목을 붙였다고 한다.<sup>52)</sup> 역자에 의하면 이 소설집의 번역이 단지 허무당의 기이한 행적에 대한 흥미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이 소설을 통해 러시아의 전제권력에 대한 허무당의 저항운동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자칭 중국의 허무당이 진정한 허무당이 되어 더 이상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주권침략을 당하지 않고, 또 국민들도 정부로부터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분발을 촉구하고자 하였다.<sup>53)</sup>

47) 金一, 「愛自由者撰譯廣告」, 『自由血』, 鏡今書局, 1904.

48) 寇振鋒, 「『孽海花』における『三十三年の夢』の受容」, 『言語文化論集』 31(2), 名古屋大學言語文化部・國際言語文化研究科, 2010年3月16日.

49) 진텐허가 “愛自由者金一”이라는 필명으로 체계적으로 여권의 중요성을 논한 『여계종(女界鐘)』을 발표한 시점은 바로 그가 러시아 허무당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고 저역활동에 종사하기 직전인 1903년 7월이었다.

50) 코난 도일의 원제목은 “A Night among the Nihilists”(Toledo Blade, Thursday, May 5, 1881). 이며 1889년 출판된 작품집 Mysteries And Adventures에 수록되었다.

51) 이상 일본의 두 작품의 원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52) 冷血譯, 『虛無黨』, 開明書店, 1904. 2.

또 같은 해에 천징한은 영국의 윌리엄 르 퀴(William Le Queux)의 작품을 일 본인 마즈이 쇼요(松居松葉)가 번역한 『허무당기담(虛無黨奇談)』<sup>54)</sup>을 「허무당 기화(虛無黨奇話)」로 중역하여 『신신소설(新新小說)』에 연재하였다.<sup>55)</sup> 『신신소설』은 처음부터 소설양식을 통한 의기(義氣)·호협(豪俠)과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사랑(忠群愛國)의 뜻을 밝히는 것을 창간취지로 표방하였다.<sup>56)</sup> 제1기부터 제12기까지 주로 협객 위주의 작품을 중심으로 삼고 그 밖의 작품을 부수적인 것으로 삼는다고 편집방침을 표방하고 「협객담(俠客談)」을 연재하였는데, 남아시아 협객담 「필리핀외사(非列賓外史)」, 프랑스 협객담 「비밀낭(秘密囊)」과 더불어 「허무당기화」는 러시아 협객담의 일환으로 연재되었다. 「허무당기화」는 러시아 허무당을 빌어 의협심을 고취시키고 “타락하고 부패한 중국사회”를 개량하기 위한 것이었다.<sup>57)</sup>

허무당 소설은 이후에도 소설잡지를 통해 꾸준히 발표되었다. <표 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계몽의식이 강한 『월월소설(月月小說)』에 천징한 등의 번역소설이 계속 발표되기도 했지만, 『부녀시보(婦女時報)』와 『소설시보(小說時報)』와 같은 대중성이 강한 소설잡지에서도 허무당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적극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특히 『소설시보(小說時報)』에서는 신해혁명 이후에 더더욱 허무당 소설이 발표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저우서우취안(周瘦鵑)이었다. 그는 1912-1914년 사이에 허무당을 소재로 한 저역작품인 「원앙혈(鴛鴦血)」, 「맹허무당원(盲虛無黨員)」, 「녹의녀(綠衣女)」, 「철창쌍(鐵窗雙)」, 「무정부당미인(無政府黨美人)」, 「번운복우(翻雲覆雨)」, 「여허무당인(女虛無黨人)」 등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그 가운데 「원앙혈」, 「맹허무당원」, 「녹의녀」, 「철창쌍」은 비록 번역한 소설로 게재되었지만, 실제로는 번역을 가장한

53) 「譯虛無黨感言」, 冷血譯, 앞의책, 1쪽.

54) ウイリアム・ル・キュー 著, 『虛無黨奇談』, 警醒社, 明37.9. 이 소설은 윌리엄 르 퀴(William Le Queux)의 *Strange Tales of a Nihilist*(London, New York, Melbourne, Sydney: Ward, Lock, Bowden and Co., 1892)를 번역한 것이다.

55) 冷血譯, 「虛無黨奇話」, 『新新小說』 第3-10號, 1904.12-1907.5.

56) 俠民, 「新新小說敘例」, 『大陸』 第二年第五號, 1904, 5.

57) 「俠客談敘言」, 『新新小說』 第1號, 1904, 8; 「本報特白」, 『新新小說』 第3號, 1904, 12.

저우서우취안의 창작소설이라는 점이다.<sup>58)</sup> 이는 당시 허무당 소설이 외국문학의 특수한 현상이라는 인식이 중국 독자들에게 이미 보편화되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표 2) 신해혁명시기 허무당관련 대표적 저역서 및 소설

허무당 관련 저서	원 서
俄羅斯大風潮, (英) 克喀伯著/獨立之個人(馬君武)譯, 廣智書局, 1902.	Thomas Kirkup, A history of socialism(A. and C. Black, 1892)
社會主義廣長舌, 幸德秋水著/中國國民叢書社譯, 商務印書館, 1902	幸德秋水, 社會主義廣長舌, 人文社, 1902
近世社會主義, 福井準造/趙必振 譯, 廣智書局, 1903	福井準造著, 近世社會主義, 有斐閣, 1903
社會黨, 西川光次郎, 周子高 譯, 廣智書局, 1903	西川光次郎, 社會黨, 內外出版協會, 1901
社會主義概評, 島田三郎/作新圖書社譯, 上海作新社, 1903	島田三郎著, 社會主義概評, 警醒社, 1901
無政府主義, 自然生(張繼) 譯纂, (上海), 1904	
自由血, 煙山專太郎, 金一(金天翮) 譯, 東大陸圖書報印局印/鏡今書局, 1904	煙山專太郎, 近世無政府主義, 東京專門學校出版部, 1902
虛無黨, 冷血(陳景韓)譯, 開明書店, 1904	(英) 柯南道爾著, (日) 渡邊爲藏, (日) 田口摺汀譯, 『魯國奇聞虛無黨』, 『文藝俱樂部』 第9卷16號(1903. 12)
虛無黨女英雄, 江西一青民, 上海, 1905	
俄宮怨, 傅闕甫譯, 1904	森林黑猿著, 俄宮怨
俄羅斯國事犯, 佚名譯, 『大陸報』 2年1-12號, 1905	
虛無黨奇話, 冷血譯, 『新新小說』 3-10, 1904. 12-1907. 5	(英) William Le Queux, (日) 松居松葉譯, 『虛無黨奇談』
虛無黨案(『福爾摩斯再生案』 第4冊), 奚若譯, 小說林社, 1906	(英) 柯南道爾著

58) 潘少瑜, 「想像西方: 論周瘦鵲的「偽翻譯」小說」, 『編譯論叢』 第四卷第二期(2011年9月), 1-23等.

허무당 관련 저서	원 서
虛無黨之秘密會, 華子才譯, 『奇獄』 第2冊, 小說林社, 1906	(美) George McWatters 著.
虛無黨真相, 芳草館主人(張朋園)譯, 廣智書局, 1907	(德) 摩哈孫著
八寶匣, 上海知新室主人(周桂笙)譯, 『月月小說』 第1-2號, 1906	
女偵探, 冷血譯, 『月月小說』第13, 15號, 1908	
殺人公司, 冷血譯, 『月月小說』第17號, 1908	
爆裂彈, 冷血譯, 『月月小說』第16, 18號, 1908	
俄國皇帝, 冷血譯, 『月月小說』第19-21號, 1908	
虛無美人, (英) 屈維年著, 覺民譯, 『婦女時報』 第4期, 1911.	
虛無黨飛艇, 楊心一譯, 『小說時報』第11期, 1911	
虛無黨之女, 楊心一譯, 『小說時報』第12期, 1911	
女虛無黨, 天津路鈞, 『小說時報』第14-15期, 1912	

이처럼 소설잡지의 지면을 꾸준히 메운 허무당 소설은 번역자나 잡지 편집자가 이를 통해 독자의 정치의식을 각성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더 주요하게는 대중적인 독자들의 독서취향과도 부합했기 때문이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허무당 소설은 중국 독자들에게는 대부분 친숙한 전통장르인 의협소설이거나 협정(俠情) 소설로서 수용되었다. 이는 러시아 혁명이 중국의 대중독자들에게 어떤 시각적 프레임 하에서 이해되는지를 말해준다. 즉 폭동이나 테러와는 달리 대중독자들에게는 이타적이고 정의를 위한 의협심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는 이미지나 자신의 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에 나서는 인물, 또는 사회적 억압과 위협

속에서 모험적으로 불의에 맞서는 형상, 곧 협의(俠義)라는 시각속에서 중국의 대중독자들은 러시아혁명을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허무당 소설은 중국의 대중적인 독자들이 러시아혁명을 접할 수 있었던 주요 매체로서 기능하며 이른바 정치성과 대중성을 결합시킬 수 있었다. 학생이나 지식인들은 주로 허무당과 러시아혁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저서를 통해 러시아혁명을 이해하였다면, 여성과 기층대중들 가운데 식자층이 주로 접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허무당 소설을 통해서였다.

## 5. 허무당 증후군의 의미망

이와 같이 신해혁명시기 중국에서 러시아 허무당은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소개되면서도 하나의 시대적 증후군을 이루고 있다. 당시 중국에서 허무당은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변주가 구성하는 의미군체로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의 시대적 증상으로 읽힐 수 있으며, 그러한 증상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하나의 특수한 현상이다.

허무당의 의미의 가장 중심적인 층위에는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러시아 허무당의 활동이 자리잡고 있다. 20세기 초 중국에서 러시아 허무당은 러시아 혁명운동을 지시하는 부호로 사용되었다. 1905년 러시아 혁명운동과 중국에서의 사회주의 및 무정부주의에 대한 이론적 인식이 심화되면서, 러시아 허무당이 러시아 혁명운동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기까지 중국에서 러시아 허무당의 활동은 전체 러시아 혁명운동의 주요 특징으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당시 중국에서 역사적 실재로서의 허무당 활동은 주로 방법적인 측면에서 부득이한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조건하의 자유민권운동으로 해석되었다. 즉 허무당은 프랑스혁명과 같이 자유민권운동이나 사회적 평등을 주장하는 근대적 정치운동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1880년대 전후 일본에서의 자유민권 운동론자들이 허무당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이유도 이 점에 있었는데, 중국에서도 1900년 이후 개량주의와 혁명주의

를 막론하고 허무당의 운동을 동시대적인 자유민권운동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허무당은 이상 역사적 층위의 의미에서 다소 확대되어 다른 차원의 의미를 아우르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양상은 바로 러시아혁명 운동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유리되어 일반적인 테러리즘의 의미로 확장된 것이다. 이는 당시 중국에서 혁명운동의 한 방법으로서의 정치적 암살이나 테러 활동이 주목받고 실제 실천에 옮겨지던 상황과 직접 연관이 있기도 했지만, 허무당은 그러한 정치적 운동과 상관없는 일반적인 테러활동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또 허무당은 허무당 활동의 신비한 비밀주의를 의미하기도 하였다.

이상 중심적인 차원과 그 외연의 확장된 의미 층위를 함께 아우르면서도 새로운 대중적인 의미부호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허무당 소설이다. 허무당의 소설화는 다양한 차원의 소설세계를 통해 허무당의 대중적 의미부호를 만들어냈다. 물론 허무당 소설 가운데 일부는 소피아 페로프스카야의 활동을 모델로 한 것이 적지 않지만, 실제 소설에서는 역사적 소피아 페로프스카야와는 무관한 허구적 인물이었다. 결국 허무당 소설은 허무당의 탈역사화를 주도하였으며, 그 주요방식은 바로 당시 대중적 소설독서의 취향과 결합하여 다양한 층위의 의미로 확장하는 것이었다. 허무당 소설에서 만들어낸 여러 의미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실제 러시아 허무당은 남녀의 여러 인물들이 주도하였지만, 소설에서는 주로 여성활동가들에 집중하고 있다. 당시 여성에 대한 주목은 두 가지 측면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근대적 평등관념에 대한 중국의 주요 반향은 바로 남녀 평등에 기반한 여성의 권리운동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사회적 기풍의 개량에 있어서 여성활동가들의 자기희생적이고 영웅적인 활동은 중국의 남녀 모두를 자극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성의 권리나 혁명활동을 위해 러시아 허무당 가운데 여성들의 활동은 당시 중국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두 번째는 허무당 소설은 전통적인 기담(奇談)과 협의(俠義)소설이라는 일종의 전통장르 성격과 결합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서구의 번역소설 가운데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던 탐정소설과도 연계된 통속적인 소설이었다. 요컨대 허무당 소설은 대중적이라는 측면과 정치적 의미망이 결합된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넓

은 의미에서는 바로 정치소설을 중심으로 한 당시 신소설의 대표적인 양상을 보여 주었다. 즉 당시 많은 정치소설이 대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계몽을 주창하면서도 실제 대중적인 독자와 유리되어 있었다면, 허무당소설은 바로 대중적 취향과 계몽성을 결합시킨 성공적인 사례였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20세기 초 중국에서의 허무당은 바로 당시 중국의 정치사상적 지형과 대중적 정치운동, 그리고 상업적 문화가 결합되어 시대정신의 문제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후군이었던 셈이다. 더욱이 허무당은 당시 러시아서구-일본-중국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문화번역의 산물로서, 종전과 다른 새로운 근대성의 생산 매커니즘과 의미의 증식과 변용과정을 보여주는 시대적 증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參考文獻〉

- 『萬國公報』
  - 『大陸雜誌』
  - 『童子世界』
  - 『浙江潮』
  - 『江蘇』
  - 『國民日日報』
  - 『新民叢報』
  - 『警鐘日報』
  - 『民報』
  - 『漢幟』
  - 『天義報』
  - 『新新小說』
  - 『競業旬報』
  - 『大同報』
  - 『第一番話報』
- 冷血譯, 『虛無黨』, 開明書店, 1904.

- 金一, 『自由血』, 鏡今書局, 1904.
- 趙必振, 『近世社會主義』(1903, 廣智書局), 上海時代書店印行, 1927.
- 葛懋春·蔣俊·李興芝編, 『無政府主義思想資料選』(上), 北京大學出版社, 1984.
- 이반 투르게네프 저, 이항재 옮김, 『아버지와 아들』, 문학동네, 2011.
- ウイリアム・ル・クユー 著, 『虛無黨奇談』, 警醒社, 明37.9.
- 김석근, 「코토쿠 슈스이(幸徳秋水)의 무정부주의」, 『동양정치사상사』 제7권1호, 2008.
- 유병관, 「고토쿠 슈스이(幸徳秋水)의 제국주의 비판과 일본 아나키즘의 수용과정」, 『일본 연구』 제41호, 2009.
- 川島忠之助譯, 『虛無黨退治奇談』, 1882.
- 西河通徹譯述, 『露國虛無黨事情』, 競錦堂, 1882.
- 安東久治郎編, 『露國虛無黨之由來』, 東雲館, 1882.
- 樽井藤吉, 「東洋の虛無黨」, 『錦江新誌』, 1882. 3.
- 煙山專太郎, 『近世無政府主義』, 東京專門學校出版部, 明治35年.
- 高須梅溪, 『近代文芸史論』(上卷), 日本評論社, 1921.
- 田中惣五郎, 『東洋社會黨考』, 一元社, 昭和5.
- 杉田策太郎, 『烈女の疑獄: 魯國奇聞』, 由己社, 1882.
- 竹越與三郎著, 『新日本史』(上), 民友社, 1891.
- 木村毅, 『明治文學展望』, 東京: 改造社, 1928.
- 大原社會問題研究所編, 『日本社會主義文獻』(第1輯), 同人社書店, 昭和4.
- 柳田泉, 『明治初期翻譯文學の研究』, 春秋社, 1961.
- 樽井藤吉, 「東洋の虛無黨」, 田中惣五郎著, 『東洋社會黨考』, 一元社, 1930.
- 杉山 秀子, 「十九世紀ナロードニキ覺え書き(一)」, 『駒澤大學外國語部論集』 第37號, 1993.
- 寇振鋒, 「『孽海花』における『三十三年の夢』の受容」, 『言語文化論集』 31(2), 名古屋大學言語文化部・國際言語文化研究科, 2010.
- 中村哲夫, 『同盟の時代——中國同盟會の成立過程の研究』, 京都: 人文書院, 1992.
- 潘少瑜, 「想像西方: 論周瘦鵑的「偽翻譯」小說」, 『編譯論叢』 第四卷第二期(2011年9月).
- 範利偉, 「清末暗殺風潮中的“虛無黨”——兼析“虛無黨”與虛無主義的關係」, 『俄羅斯文藝』, 2014.
- 範利偉, 「作為泛化概念的“虛無黨”」, 『經濟與社會發展』, 2013.
- 阿英, 「翻譯史話」, 『阿英全集』 第5卷, 安徽教育出版社, 2003.
- 阿英, 「中譯高爾基作品編目」, 『翻譯史話』, 『阿英全集』 第5卷, 安徽教育出版社, 2003.
- 陳建華, 「虛無黨小說——清末特殊的譯介現象」, 『華東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6年04期.

張全之, 「從虛無黨小說的譯介與創作看無政府主義對晚清小說的影響」, 『明清小說研究』, 2005年第3期。

William Le Queux, *Strange Tales of a Nihilist*, London, New York, Melbourne, Sydney: Ward, Lock, Bowden and Co., 1892.

Thomas Kirkup, *A history of socialism*, A. and C. Black, 1892.

Sergei Stepniak, *Underground Russia: revolutionary profiles and sketches from life*, Westport, Conn., Hyperion Press, 1882.

Paul Vernier, *La Chasse aux Nihilistes*, Paris: P. Ollendorff, 1880.

Copleston, Frederick, *Philosophy in Russia: From Herzen to Lenin and Berdyaev*, Notre Dame: Search Press, 1986.

#### 〈Abstract〉

Nihilism fiction is a unique phenomenon in late Qing Dynasty. It is closely connected with global circulation of Russia revolution discourse, especially nihilist activities. From the 1880s, publishers in the west and Asia noticed Russia revolution discourse which Stepniak, author of *Underground Russia* lead. Newspapers in Japan there gave full coverage to the activities of the Russian Populist and between 1881 and 1883, followed by many books books dealing with Russian Nihilists published.

After Boxer Rebellion in china, Nihilist discourse sprang up in society, and caused syndrome of Xuwudang(Nihilist). It was was reflected in the productions od cheap popular fiction and nonfiction. Its syndrome was related with poitical movement, but its meanings often were totally out of historical context. Xuwudang is used in many meaning, such as a mere terrorist, secret activity.

Sophia Perovskaya was popular topic of Chinese fiction in those. but Most Chinese books on Xuwutang, as in Japan, with little knowledge of the subject. Chinese works on the topic were written in accordance with popular fiction like bizarre story, heroism, a detective story.

This article will show process of formation of Nihilism Discourse in late Qing Dynasty, and analyse the implicative meangs as periodic symptom.

Key Words: Nihilism fiction, Russian Populist, Xuwudang(Nihilist), periodic symptom, syndrome of Xuwudang

이 논문은 2015년 7월 15일에 접수되어 2015년 8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5년 8월 1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